

# 금호타이어 노조 오늘 전면 파업

## 사측 "직장폐쇄" 강경...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시사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24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2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회사 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키로 해 노사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 대해 채권단은 "이해할 수 없다.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워크아웃 중단을 시사해 금호타이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정의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는 25일 하루동안 '교섭 촉구'를 위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대위는 투쟁지침과 성명을 통해 "회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25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들어간다"며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정상근무를 하면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그 후 투쟁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관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미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데다 전면파업까지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이 분명해 전면파업을 할 경우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휴연근 금지 및 근무조별 1시간씩 매일 3시간 기계가동 중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23일 까지의 매출손실액이 31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5일간 전면파업을 한 것과 같은 손실이며 여기에 회사 이미지와 신뢰 하락 등 손실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전면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노사간 충돌이 우려된다.

여기에 채권단의 대응도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미 결정(작년 임단협)된 것 가지고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를 살리기 위해 1조원 가까이 투자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워크아웃 자구계획서에 인크로 마르기 전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이익을 못내면 망하는 것 아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조가 25일 전면 파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24일 오후 노조원들이 광주시 북구 정부합동청사 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의조정 기간 산정을 놓고 지노위 관계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송기진 광주은행장 주총서 선임 확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4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기진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송기진 현 행장을 제11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또 제52기(2010.1.1~2010.12.31) 재무제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그 결과 당기 순이익 1055억원과 주당 747원,

총 369억원의 배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홍금우 교수를 광주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강희복 (재)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과 박명섭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강선기 우리금융지주 상무를 비상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지속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호조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월 중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11.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월 중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2로 전달보다 하락 반전했다. 광주의 경우 수출은 자동차·타이어·반도체, 전남지역의 석유제품·철강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3%의 증가율을 기록, 전달(27.1%)보다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또 1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설 시기 이전효과인 이상한파에 따른 방한용품 매출 호조 등으로

16.8% 증가했으며,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전달보다 3P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1월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이 각각 10.3%와 3.9% 늘었지만 전달(14.6%, 32.1%)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으며 1월 말 미분양 아파트 수는 신규분양이 미미한 가운데 재건축에 따른 수요증대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월 중 고용은 비농림업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2월 9만5000명 늘었다가 지난 1월 14만8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월에 10만9000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7%로 전달보다 0.9%P 상승했고 고용률은 56.4%로 전달(56.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 '셀런·지앤알' 상장폐지 위기

■광주·전남 상장사 현황 (단위:억원)

◇ 광주(13)			
시장	회사명	결산	자본금
유가	광주신세계	12	80
	금호종금	3	899
	금호타이어	12	4,648
	대우에이텍	12	312
	대우신소재	12	272
	로케트전기	12	190
	부국철강	12	100
셀런	셀런	12	157
	회천기공	12	110
코스닥	대신정보통신	12	192
	서산	12	20
	에스큐엔	12	270
	지앤알	12	301
◇ 전남(12)			
시장	회사명	결산	자본금
유가	금호산업	3	5,541
	동아에스텍	12	64
	디에스알제강	12	72
	보해양조	12	125
	조선내화	12	200
	KPX화인케미칼	12	190
	성원피프	12	653
	와이엔텍	12	70
	피루	12	237
	행남자기	12	301
코스닥	KPX생명과학	12	75
	폴리플러스	12	168

## 전국 18개 부실기업 증시퇴출 공포

광주·전남 주요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회계감사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셀런,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앤알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3일까지 25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누락 제출' 업체들은 상당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퇴출 대상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시장 14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봉신, 셀런, 성지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아티스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톤이엔에프,

한와이어리스, 세븐소프트, 제일창투, 넥서스투자, 트루아워, 맥스브로, 유니텍전자, 지앤알, 뉴젠아이씨티, BRN사이언스 등 14곳이었다.

이와 별도로 오전 9시 현재 유가증권 6개사, 코스닥 1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에서는 다산리츠, 셀런, 알앤엘바이오, 오라바이오틱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등 6곳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노시스템, 디패션,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히스토그램, 피엘에이, 유비트론, 선도소프트, 엔빅스, 게임하이, 나이스메탈, 대국, 토자이홀딩스, 금성테크, 씨모텍, 알티전자, 엔하이테크, 엠엔에프씨 등 19개사다. 유아이에너지와 케이에스알, 화우테크는 이날 개장전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편의점서 싱싱회 판매**

GS25는 25일부터 편의점업계 처음으로 회를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되는 제품은 활어회가 아니라 생선을 손질하고 일정 시간 숙성한 '싱싱회'로, GS25는 5~10시간 숙성을 거친 광어, 연어, 홍어 회를 선보인다.

광어와 연어는 100g과 200g 포장 제품이 각각 9800원, 1만8900원에 판매되며 '광어+연어' 200g 제품은 1만8900원, 홍어 150g 제품은 9900원이다. /연합뉴스

**배추·대파·감자값 소폭 하락**

배추와 대파 등 채소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24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배추는 저장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하나로클럽 양재점 기준으로 1주일새 17.5% 내린 1포기당 3300원에 팔리고 있다.

대파는 10.1% 내린 1780원(1단), 감자는 6.7% 내린 3500원(1kg)이다. 무는 1개당 1850원으로 지난주와 같은 값이 매겨졌으나 880원에 할인 행사 중이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韓銀 '동전 다시쓰기' 캠페인**

내일 무등산 옛길걷기 행사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제4회 무등산 옛길 걷기'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돈 깨끗이 쓰기 및 동전 다시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돈 깨끗이 쓰기 및 동전 다시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돈을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제101227-중-20563호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 서울우리들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 풍부한 경험의 의료진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

\*조감도